



# 충성대신보



▲ 제32대 학교장으로 취임한 황대일 소장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있다.

## 도약 100년을 이끌 제32대 학교장 황대일 장군 취임

**오직 정에 사관생도 육성만을 생각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사명완수를 위해 학교 교육 혁신에 온 역량을 결집시킬 것!**

본교는 지난 12월 28일 14시 충성관 강당에서 학교장 이·취임식을 거행, 제 31대 학교장 서정열(3사 20기) 소장이 이임하고 제 32대 신임 학교장으로 황대일(육사 43기) 소장이 취임했다.

육군참모총장(대장 김용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및 3사 총동맹회장, 인접 부대장,

대학/자매단체 등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장병, 군무원, 사관생도 등 약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직교대 신고에 이어 ▶ 명령 낭독 ▶ 부대기 이양 ▶ 이·취임사 ▶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모총장은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장교’로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3사관학교의 혁신을 주도해 온 서정열 장군의 노고를 치하한 후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로서 이런 특별한 다양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장점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인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임하는 제31대 학교장 서정열 장군은 “사관생도 여러분은 우리 군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생도문화를 전통가치로 발전시켜 군인다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활화함으로써 상관과 부하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제32대 학교장 황대일 장군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관생도들은 육군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각자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투철한 국가관과 헌신적 리더십, 창의성 발휘를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본부와 교수, 훈육요원, 지원요원 등 학교 전 장병

들은 오직 정에 사관생도 육성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사명완수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교 교육 혁신에 온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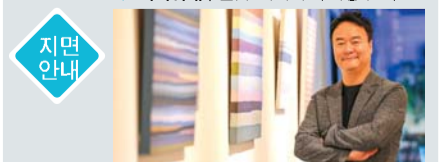
신임 학교장은 87년에 소위로 임관했으며, 9사단장, 제1야전군사령부 참모장, 대통령 경호실 군사관리관 등 아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여 탁월한 군사적 식견과 훌륭한 성과를 지닌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한편, 이날 이임한 서정열 장군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정훈공보실장 중령 고성진



- 02 학교소식 | 2018년 올해의 주요소식
- 05 명사칼럼 | 성군관대 초빙교수 강보승
- 06 기획취재 |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대표



07 생도광장 | 우리들의 이야기 포토스케치

54기 기자생도 정영찬

# 2018년 올해의 주요소식

2018 무술년(戊戌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간다.  
 개교 50주년을 맞았던 올해도 미래 육군을 이끌어 갈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데에  
 전장병 및 군무원들이 제역할과 책임을 다한 한 해였다.  
 다사다난했던 학교 내 여러 가지 일 중 몇 가지 주요소식을 살펴봤다.



▲ 신년 새해맞이(1. 1)



▲ 군환경연구센터 창설(2. 23)



▲ 육군 웹드라마 '백발백중' 촬영(3. 22)



▲ 수송부 무사고 3,000일 달성(3. 28)



▲ 충성대 사관캠프(4. 11)



▲ 스승의 날(5. 18)



▲ 졸업생 Home Coming Day(5. 26)



▲ 현충일 추념식(6. 6)



▲ 간호사관학교 수탁교육(6. 18)



▲ 해외 참전 용사 학교 초청(6. 20)



▲ 6·25전쟁 68주년 국제 학술세미나(6. 22)



▲ 57기 생도 선발 체력 측정(7. 31)



▲ MBC 진짜사나이 300 촬영(8. 1)



▲ 역대 학교장 초청(10. 2)



▲ 충성대 학술세미나(10. 5)



▲ 개교 50주년(10. 15)



▲ 일본간부 후보생 학교 교류(10. 18)



▲ 국토수호 다짐 결의(10. 20)



▲ 리더십세미나(11. 9)



▲ 산학협력단 개소(11. 21)



# 조직내 갈등·위기관리 극복을 위한 리더십

## 제7회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 개최

개교 50주년을 맞아 리더십센터는 11월 9일 학교 충성관에서 '조직내부 갈등·위기관리 극복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7회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 이어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아시아태평양마케팅포럼 조서환 회장을 비롯한 대외기관과 야전부대 리더십 관계관, 사관생도 등 1,1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학교장은 환영사에서 "사관생도들이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리더십'을 통해 부하에게 존경받고 상관에게 인정받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장교로 거듭나는 데

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주제 토론회 시 세미나 참석자들이 창의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훌륭한 리더를 양성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각 주제별 토론회를 통해 조직내부 갈등·위기관리를 위한 리더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리더십 함양을 위한 생도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4학년 김기표 생도는 "이번 리더십 세미나로 조직의 위기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이해하고 사관생도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장차 장교로서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위 조동열



▲美18군 군중참모 김철우 대령이 전장리더십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학교 간부에게 전하는 생도들의 이야기



지난 12월 12일 시대변화에 상응하는 통섭형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간부와 사관생도와의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 학교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에는 학교내 간부와 사관생도 등 1,200여 명이 충성관에 참석한 가운데 「학교 간부에게 전하는 생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미래환경 및 시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생도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

이날 1부에서는 ▶생도에 대한 인식 전환 ▶학교 브랜드가치 향상 방안 ▶생도 모집 및 홍보 활성화 방안 ▶사관생도 자긍심 고양방안에 대해, 2부에서는 ▶사관생도 기본권

제한요소 개선방안 ▶생도 학습여건 개선방안 ▶졸업인증제 개선방안 ▶자율과 책임의 생도문화 등 총 8개 주제를 다뤘다.

55기 최형식 생도는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대한민국 1%로라는 자긍심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의식변화의 중요성을 밝혔다.

학교장은 "여러분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생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생도 여러분도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관 배상범

# 세계 3대 인명사전 두 곳에 이름 올린 육군장교

빛나는 연구 열의로 한국장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소령 손창호

본교 무기시스템공학과의 손창호 소령은 기술경영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두 군데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와 영국의 캠브리지 인명사전의 2018년 판에 동시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손 소령은 빅데이터분석 전문가로서 작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선정되어 서울대학교 석·박사 연구원들을 이끌고 '빅데이터분석을 활용한 모바일서비스 혁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만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 소령은 "대내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생도교육은 물론이고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해서 학교와 우리 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5기기자생도 고명환



소령 한종훈

본교 한종훈 교수(환경공학과, 소령)가 12월 5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토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로 열린 기념행사다.

한 교수는 군내 환경공학분야 권위자로서 군환경연구센터 자연보전환경연구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본교 및

육군본부, 환경부, 교육과학부 등 여러 기관의 환경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무려 115건에 달하는 국내·외 학술지 게재와 학술발표 등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상은 평소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행동으로 실천하고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 졌다.

한 교수는 "군은 환경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곳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며, "군환경연구센터의 일원으로서 이번 수상은 군과 환경이 더욱 굳건하게 손잡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위 손아리

# 「2018 세계 토양의 날」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전국 대학생 우수 논문 발표회 은상 수상



지난 11월 16일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 도일규)가 주관한 제9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우수 논문 발표회가 서울대학교 학군단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본교 무기시스템공학과 3학년 박정환, 이효돈 생도가 당당히 은상을 수상했다.

두 생도는 학교의 이름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수상 상금 또한 학교발전기금으로 쾌척하기로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55기기자생도 김유란

# 제38대 생도대장 준장 고창준 취임



준장 고창준

12월 24일 고창준 준장(3사 26기)이 제38대 생도대장으로 취임했다. 고창준 준장은 부임 전 6군단 참모장을 지냈으며,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교학행정처장,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작전조정관, 7사단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제37대 전임 생도대장 김경봉 준장은 지난 12월 6일 이임식 후 203 특공여단장으로 취임했다.

54기 기자생도 김덕

사설

有始有終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광의의 의미로 바꾸면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경구(警句)로도 쓰이게 된다.

‘황금 개의 해’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의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 시작된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18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으며, 학교의 입장에서는 ‘천명(天命)을 아는(知) 나이, 즉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거기에는 끝이 있다. 1년의 시작인 원단(元旦)이라면 그 끝은 제석(除夕)이다. 하지만 원단에서 제석까지 이르는 그 기간은 그리 녹록하거나 간단치 않다.

『사기(史記)』『태사공자서(太史公自叙)』에 “무릇 봄에는 살아나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갈무리 하는 것이 천도(天道)의 큰 길이다. 여기에 잘 따르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紀綱)을 세울 수 없다. 夫春生 夏長 秋收 冬藏 此天道之大經也 弗順 則無以爲天下紀綱”라는 구절이 있다. 봄에는 씨를 뿌리면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름에는 가뭄을 이겨내며 곡식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고, 가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곡식을 수확하고, 겨울에는 이를 소중히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하늘의 섭리라는 뜻이다.

학교의 한 해 모든 업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매우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도 실상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자신의 직책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도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름에 맞는(正名)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다.’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는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다. 공자가 말씀하신 천명(天命)을 깨닫는 나이까지 학교가 성장한 것이다.

『중용(中庸)』에 “천명(天命)을 일컬어 성(性, 당연한 성질)이라 하고 그 성(性)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하고, 그 도(道)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의 끝을 맞이하고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새로운 개교 50년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학교의 50년 역사가 천명(시대의 흐름)을 단순히 아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새로운 50년은 변화되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修道=教)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유시유종’의 경구를 잊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의 순수한 초심(初心)으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새로운 한 해, 아니 새로운 50년의 씨를 소중히 뿌려야 할 것이다.

충성대 만평



오리엔티어링기법을 적용한 기다려지는 독도법훈련

충성대 칼럼

소령 이신일(군사훈련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무기이다. 총, 칼, 전차, 전투기 등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들 못지 않게 승패를 좌우했던 작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 올바른 방향과 지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작전을 시행하는데 기여한 것이 바로 지도와 나침반이다.



지도와 나침반은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하거나 적군을 피해 철수하는 길을 알기 위해 꼭 필요했던 군인의 필수 아이템이었다. 오늘날에 나침반과 지도가 GPS와 내비게이션으로 발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나의 위치와 원하는 곳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특 개선했다. 첫째, 표적식별체계를 개선했다. 기존 훈련방법은 표적을 찾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계훈련에는 생도들이 찾아야 하는 표적번호를 알고 목표표이동해서 내가 찾는 표적이 맞는지 자체 평가하고, 틀릴 경우 찾고자 하는 목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훈련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생도들도 성취감을 느끼고 훈련의 효과도 증대되었다.

둘째, 인도어 클라이밍(Indoor Climbing)을 적용하여 이동계획수립을 구체화 했다. 인도어 클라이밍의 목적은 지도에 의한 이동계획이 실제 지형의 이동에 대한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있다. 실제 산악지역을 이동하기 전에 지도상에 나타난 등고선, 기복, 식생, 방위각 등의 지형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동계획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숙달해야 한다.

셋째, 나침반과 지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GPS 앱을 활용한 훈련이다.

독도법훈련은 단순히 길을 찾는 훈련, 지도를 읽는 방법이 아니라 지도와 실 지형을 비교하여 지도상의 세부 지형정보를 작전활동에 활용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

경로를 한 번에 알려주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지도와 나침반은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스포츠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 바로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이라는 스포츠로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미지의 지형에 있는 목표물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동안 찾아서 돌아오는 ‘보물찾기’ 같은 경기이다. 오리엔티어링은 19세기 후반 북유럽 지역에서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18년 스웨덴의 청소년 지도자 에른스트 킬랜더(Emst Killander)에 의해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다.

군사훈련에서 파생된 오리엔티어링 스포츠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기는 국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도들은 독도법 훈련이라고 하면 어렵고 힘든 훈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리엔티어링 경기 기술을 적용해 흥미있고 재미있는 훈련이 되도록

스마트폰에 장착된 GPS기능과 전 세계 지도정보는 고가의 GPS 단말기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PS의 위치표시, 이동루트 선정, 고도 및 방향 표시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자기위치, 찾기 어려운 초입 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손자병법 10장 ‘지형’ 편에 보면 ‘지천지지 승내가전(知天知地 勝乃可全)’이라는 말이 있다. ‘천기와 지리까지 알면 승리는 가히 온전해진다’는 말이다. 독도법훈련이라고 하면 단순히 길을 찾는 훈련, 지도를 읽는 방법이 아니라 지도와 실 지형을 비교하여 지도상의 세부 지형정보를 작전활동에 활용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독도법훈련이 이러한 개선된 훈련방법을 통해 생도들에게 어렵고 기피하는 훈련이 아닌 재미있고 흥미있는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한 본성을 밝히고 생명을 지키는 참사람의 길

사회 저명인사 칼럼

강 보승(성균인성교육센터 책임연구원, 現 성균관대 초빙교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무엇일까? ‘극한직업’과 같이 힘든 직업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이나 다큐에는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터는 군대이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전쟁이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군인이라 생각한다.

『손자병법』에서도 “무기(군대)는 가장 흉(凶)한 것이니, 성인(聖人)께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서 신중함을 당부하고 있다. 전쟁은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간만사 중 가장 흉하고 두렵고 힘든 일에 젊음을 바쳐야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직관적이고 현실적 이유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상호 노력으로 낯선 대치국면이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우리는 북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북한을 상징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국의 위협 속에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군인이 되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그런 이유라면 세금을 더 걷어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거나 첨단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거나 무기 체계를 자동화하여 군인을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

것도 여의치 않으면 우방과 동맹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협을 줄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군인이 되어야 하는 요인을 외부에서 찾고 국방의 문제를 돈이나 주변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간만사 중 가장 흉하고 어려운 일에 젊음을 바쳐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물론 병역의

의무가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군인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강제 때문으로 돌린다면 참된 군인이라 할 수 없다. 군에서 자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에는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힘들 때 한두 번 위로는 되겠지만 강제와 타율이 전제되면 결국 군은 회피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 몸을 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뒤집어 보기를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군은 흉(凶)한 곳이 아니라 길(吉)한 곳이라는 인식이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은 타국을 침략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군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이며, 남북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군

상이 그러하고 유교와 불교 등 동양의 종교와 사상도 모두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강조한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각박해지면서 이 같은 정서가 점점 열어지고 있지만,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밝게 존재한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다. 우리의 본성을 안다면 본성과 그 본성을 담고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에 자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그 자발적 의지가 바로 반만년 동안 우리를 지켜온 원동력이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 이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가장 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어야 하는 내적 동기를 알게 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꺼이 총을 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단지 법적 의무에 의해 또는 국가 권력의 강압과 세뇌에 의해 국민에게 군복을 입힌다면 그 군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세력이 강할지라도 점점 와해되어 무너진다. 제국주의 일본과 독일이 그러했고 고구려를 침공한 수와 당의 군대가 그러했다. 반면 본성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고자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대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 침략자를 막아낸다. 바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군대가 그러했다.

우리는 선조의 정신을 이어 인류의 선한 본성을 밝히고 생명을 지키는 참사람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 같은 자각 속에서 우리 군은 존재의 당위성을 갖게 되고 우리는 기꺼이 젊음을 희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군은 흉(凶)한 곳이 아니라 길(吉)한 곳으로 남북한을 안정시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이라는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에서 보았을 때 군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얼핏 보면 당연한 인식이 의외로 쉽지가 않다. 왜일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르지만, 기독교와 근대 사회사상에 뿌리를 둔 서양인은 대개 인간을 이기적이거나 악한 존재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선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우리 고유 사

# 신라의 청년정신, 화랑을 찾아서

제갈덕주 선생의 문화기행 ⑪

제갈덕주(경북대학교 책임연구원)



육군3사관학교와 인연이 된 지 몇 해가 지났다. 매학기 생도들과 함께 전적지나 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이 있다. 지난 가을 신문사 기자생도들과 함께 경주를 다녀왔다. 천년고도가 지닌 신비와 감동은 여전히 새롭기만 하다. 신라의 흥망성쇠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월성 지역을 찾아 월성, 계림, 동궁, 월지, 첨성대, 대릉원을 둘러보고 최근 경주시

에서 관광코스화하고 있는 황리단길도 돌아보았다.

건국초기 사건이 잘 알려진 고조선,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신라의 건국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라는 사로국 또

속에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새롭다는 뜻의 새는 ‘사이, 사, 소, 쇠, 서’ 등과 혼용되어 쓰이는데 이것을 혼차해서 새 신자로 쓴 것이다. ‘나’는 땅을 뜻하는 고유어로서 ‘나, 노, 로’ 등이 혼용되고 있다. 땅 중에서 넓은 땅을 ‘나’ 또는 ‘노’라 하는데 이것은 ‘들’보다 오래된 고유어이다. 현대어에서는 농지를 뜻하는 ‘논’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를 음차하면 ‘나, 라, 로’ 등으로 표기한다. 즉, 신라는 ‘새땅’이라는 뜻이 된다. 이것이 사로국 또는 서라벌로 쓰인다.

신라 호국정신을 대표하는 화랑도(花郎徒)는 수장을 나타내는 ‘화랑(花郎)’과 무리를 의미하는 ‘랑도(郎徒)’의 합성어이다. 원래는 진흥왕 때 설치된 원

라고 하였기에 다른 말로 ‘풍월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화랑’은 무리의 수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시대에 많어도 7명을 넘지 않았다. 그 화랑을 따르는 무리를 합쳐 ‘화랑도’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화랑으로는 ‘원술랑(김유신 장군 아들)’, ‘죽지랑(모직지랑가)’ 등이 있으며, 현재 남도의 집단 명칭이 남아 있는 것은 김유신 장군을 화랑으로 하여 활동하던 ‘용화향도(龍華香徒)’가 유일하다.

화랑도는 오늘날로 보면 구국활동을 해 온 청년단체에 해당한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하자 청년들이 모여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유신 장군이 살던 시대이다. ‘백제와의 전쟁’을 그린 ‘황산벌’, ‘고구려와의 전쟁’을 그린 ‘평양성’ 등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화랑도’는 이어지는 당나라의 외침을 막아내며 영토를 한강 이북 지역까지 확장하게 된다. 이로부터 통일신라시대가 열려 천년왕국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고대사회로부터 청년활동은 구국활동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바로 선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국의 첫걸음이다.

## 고대사회로부터 청년활동은 구국활동의 표상 애국의 첫걸음은 청년이 바로 선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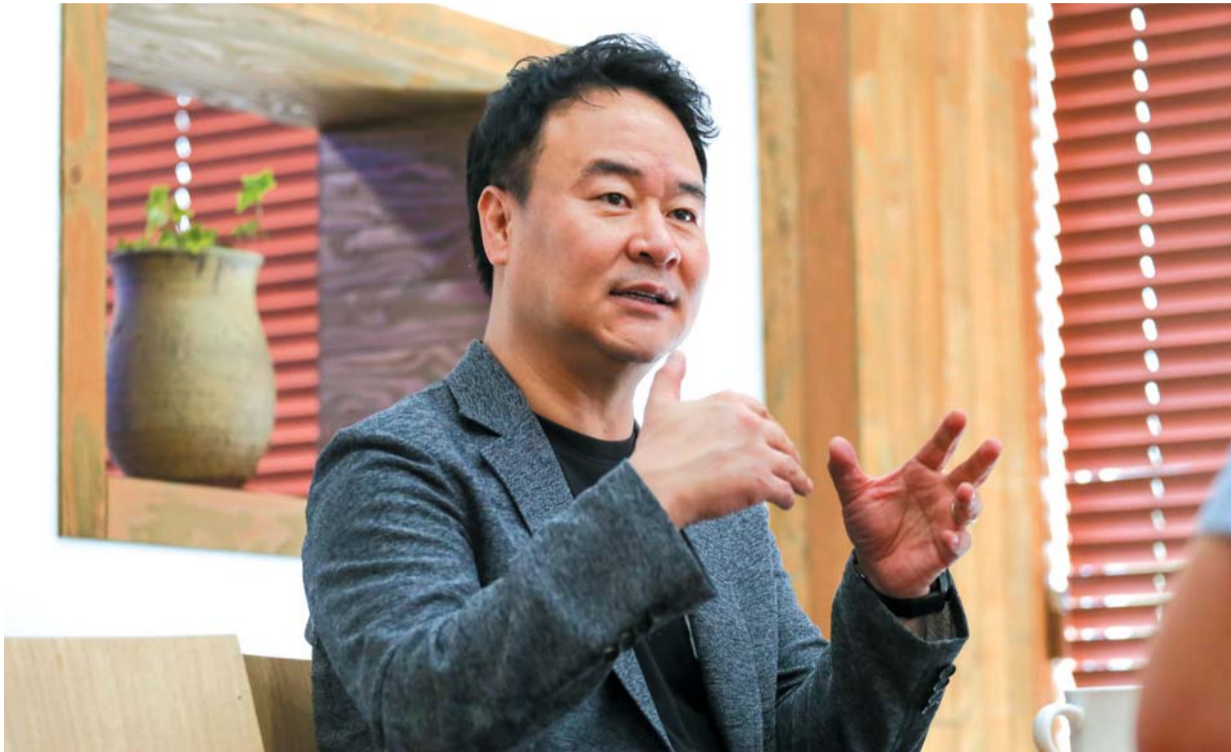
는 서라벌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새 땅을 뜻하는 고흥의 한자식 표기에 해당한다. 신라시대에는 이중모음이 발달되지 않아 ‘새’가 ‘사이’ 등으로 읽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을 ‘서이’, ‘넷’을 ‘네이’ 등으로 읽는 경상도 방언

회에서 기원하였는데, 임금을 보필하는 양대 여성 조직의 수장인 ‘원화’가 그를 따르는 무리인 ‘랑도’를 거느린 구성이었다. 이후 이 조직 모형이 남성조직으로 바뀌면서 그 수장을 ‘화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화랑들의 수장을 ‘풍월주’



“한달에 13곳에서 월급을 받는”

#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대표



前 카카오 이사, 현재 PYH(피외이에이치) 대표이사, (주)삼성전자 마케팅 전략고문, (주)우아한형제들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사, 금융감독원 홍보자문위원, 본죽&본도시락 마케팅 전략자문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중이시며 한달에 13곳에서 월급을 받는 박용후 대표가 생도들과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Q** ‘관점을 디자인 하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소통하고 계신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A** 비전은 생각으로 보는 것이고 많은 성공을 보고 비전을 만들 수 있고 비전이 성공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전은 생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비전과 성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등 많은 기업들의 성공을 보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못 보는 세상,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을 미리 본 것 그리고 먼저 본 것들을 통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Q** 본인을 관점 디자이너로 생각하고 관점 아티스트라고 하셨는데 또다른 관심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성공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다보니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인데 두 가지 축이 생겼어요. 가치와 구조 (value and structure)예요.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되는 기업들은 다 그게 있어요. 사람을 설득하는 구조는 뭐지? 설득을 통해서 만드는 가치는 뭐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굳은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어떤 구조로 하여금 지휘를 해야 하는가. 예로 세종대왕도 가치와 구조를 가지고 Why법을 많이 쓰고 사람을 믿어주는 것, 들어 주고 믿어주는 것. 그 말이 제일 멋있었어요. 세종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공적으로 허물을 덮게 하라’ 세종의 그 말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 잘못하면 머리를 칩니다. 그러니깐 실패가 재산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는 실패가 되는 나라입니다. 역시 세종대왕 같은 리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으로 허물을 덮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직언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어요. 언론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계속 직언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토론하시고, 유대인들을 계속 보면 토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토론을

가장 많이 했던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Q** 20대 시절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A**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는데, 어머니가 다 경험 해보라고 하셨어요. 살인, 도둑질 빼고 뭐든 본인이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봐요. 저는 기지를 했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지를 하면 누구나 인터뷰 할 수 있고 쫓지 않아요. 그게 넘어서 건방지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지는 불상을 켜 당나귀라고 항상 말해요. 사람들이 ‘오’ 하는데 그 브랜드를 보고 하는 건데 자기가 센줄 알고 건방지다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안타까워요.

**Q** 생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스트레스 해소방법, 힘들어 하는 생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부러라도 리추얼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 행동 하는 것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심표를 찍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고 감정을 객관화 해서 볼 줄 알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자신을 객관화 시켜서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주관의 객관화, 객관의 주관화의 균형을 잡는 것, 생각이 밸런스를 잡는 것,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생각은 질문의 형태로 표현되고 질문을 하려면 앞선 전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Q** 카카오톡 홍보이사셨는데 카카오톡에 관련된 이모티콘 무료로 받으시는지요?

**A** 열심히 사서 매출을 올려줘야죠. 우리 회사인데 산 이모티콘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깐 이모티콘으로 영화한번 만들어봐요 다 되요. 행동하는 게 다 있잖아. 이모티콘 영화제 한번 만들어 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있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Q** 항상 마칠 때 ‘언제 행복하실 생각이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시는데?

**A** ‘행복하세요’ 라는 말은 상태를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만들어서 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들 방법을 물어보는 게 맞죠. 우리나라는 행복하냐는 말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냐 안하냐라는 질문은 멍청한 질문입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이지 질문을 던질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똑같이 생각할 시간이면 어떻게 행복해야되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게 나은거 같아요.

**Q** 언제부터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셨는지요?

**A** 김범주(현 카카오 이사회 의장)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저 친구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친구는 왜 부자이고 네이버를 만들기까지 한거지?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생각이 달랐더라고요.

**Q** 생도들에게 시간관리는 생명인데,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A** 생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즉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생도들은 미래에 장교가 될 사람들인데, 지휘관의 역할 중 하나도 용사들에게 군 복무 시간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휘관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관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그 생각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수시로 떠오른 생각들을 계속 메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그 메모들을 바탕으로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저술한거죠. 그리고 우리 생도들도 책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생도생활에 대해 책을 써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쓰면 책임감이 생기고, 또 때 순간에 의미부여를 하려고 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일을 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모든 시간은 의미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A** 우리 생도들이 생도생활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없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도들과 서로의 경험, 생각을 공유해서 정말 좋았어요. 지금 우리 생도들과 20대 청년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를 알아서 좋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포기하면 안타깝다. 안됐다 가 아니라 포기해줘서 고맙다 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우리 생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장교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현장취재: 주무관 이경희

55기기자생도 박동주



###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2018년도 사관생도들은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올바른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담금질 되어가는 사관생도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사관생도들의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 기초군사훈련  
기초군사훈련간 임시입학생도들이 힘찬 함성과 함께 각계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 명예 및 세심 의식  
생도생활 동안 마음과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생도 간에 손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 55기 입학식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사관생도들이 장교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



▲ 53기생도 졸업 및 임관식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 생도들이 장교로서 힘찬 첫 출발을 자축하고 있다.



▲ 충성의식  
생도들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해 충성의식을 치르고 있다.



▲ 국내 전적지 학술탐사  
국가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을 방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격훈련  
한 생도가 화산유격장 종합장애물 코스를 극복하고 있다.



▲ 공수훈련  
55기 생도들이 공중침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수송기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리고 있다.



▲ 충성대의 밤  
사관생도들이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연마한 실력을 뽐내고 있다.



▲ 충성제 체육대회  
평소 연마한태권도기량을 뽐내기 위해 겨루기를 하고 있다.



▲ 일반학 수업  
교수와 생도 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고문

### 몽골제국 군대가 강했던 이유와 우리 군의 지향 방향



대령 이영찬 (50동원지원단장 / 육사 43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그것은 바로 몽골제국이었다. 동쪽으로는 고려로부터 서쪽으로는 헝가리까지 3360km이다. 인구 100여만 명에 군인은 20여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강의 군대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동력의 우수이다. 몽골 군대는 전원 기병으로 병사 1인이 말 4~5마리는 몰고 다녔다. 1241년 헝가리 정복 전에서는 하루 평균 100km를 주파하였는데 이는 2차 대전에서 독일의 기갑군단의 기동속도보다도 빨랐다. 둘째, 무기체계의 우수이다. 몽골은 적과 부딪치면 활로 200~300m의 거리에서 집중사격 후 혼란한 틈을 노려 돌격

또는 각개 격파를 실시했다. 또한 창을 쏘는 기계, 노포, 투석기, 사다리 등 선진장비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적 지휘체계를 끝까지 마비시키는 것이다. 칭기즈칸은 호레즘 황제를 병동대 2만으로 2만km를 추격하였고, 그는 결국 카스피해 섬으로 숨어들어가 그곳에서 사망을 하였다. 넷째, 융통성 있는 전술의 적용이다. 몽골군은 양익포위, 유인전술, 개구전술, 후방차단 등을 상황에 맞게 구사하였고, 이를 위해 정보의 수집과, 공포확산, 교란작전, 위장과 매복, 회피와 반격 등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엄격한 전투규율을 적용하였다. 유목민들은 통상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에 급급한데 전투 중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였고 전투 후에 실시하여 공정하게 분배하였다. 여섯째, 상시 야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늘 초원의 말위에서 먹고 자면서 날씨의 변화와 추위 및 더위를 이기도록 하였고, 마유나 마혈을 마시도록 하는 등 강한 신체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일곱째, 정보수집의 우수이다. 정복할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인을 활용하여 정

치 환경과 병력의 배치, 군대의 우열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이처럼 몽골제국 군대가 최강이 된 이유를 현재 우리 군에 적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위에서 제시된 일곱 가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병위주의 부대를 하루빨리 기계화 부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계화만 된다면 충분한 전투력의 발휘가 가능하고 강력한 육군항공까지 추가된다면 진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무기체계를 첨단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텔스 전투기와 공격 및 방어용 미사일의 개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도입, 사이버전 역량의 강화, 드론봇 전투체계와 레이저 무기 등의 신개념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적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초전부터 적 지휘부를 제1의 타격목표로 선정하여 폭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타격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끝까지 생포하거나 섬멸시켜야 한다. 넷째, 융통성 있는 전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 전술도의, 전사 및 교범 연구 등을 통해 군사지식을 함양하고, 제대별

장기간의 독단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엄격한 전투규율은 평소부터 확립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고 강한 훈련과 적절한 처벌 등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상시 야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단련과 생존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에서 추진하는 워리어 300처럼 개인의 전술전기를 최고로 숙달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보의 우수성은 현재의 인간·신호·영상 정보 등을 첨단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찰·통신·조기경보·항해용 등의 인공위성도 확보해야 한다.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7가지 요소들 중 전술 운용과 전투규율, 야성 등의 인적분야는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야지만 기동력과 무기체계, 지휘체계, 정보자산의 확보 등 장비분야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결국 최강의 군대는 군과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몽골 군대는 항상 어떻게 최단시간 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만 고민하여 실전에 적용하였다고 한다. 우리 군도 상시 전투적 사고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최고의 특급전사가 되어야 하며, 위국헌신의 각오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기고문

### ‘중국공산당 대장정’에서 배우는 리더십



생도 이지호 (6훈육대 / 54기)

중국군사연구 수업 시간에 현재의 중국이 있게 한 역사적인 사건인 ‘중국공산당 대장정’ 다뤄 감상하였다. 중국공산당 대장정은 중국의 국부 쑨원에 이어 중국국민당 정권을 이은 장제스가 시작한 국공내전의 결과, 중국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해 약 2년 동안 1만 2천km를 퇴각한

사건이다. 장제스는 만주지역을 침입한 일본군보다 공산당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산당 제압에 들어갔다. 미국의 지원으로 화력이 강해진 국민당의 공격에 공산당은 난창, 광저우 등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나 모두 대패했다. 이어지는 패배 속에서도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설립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국민당은 공산당토벌전을 벌였으나,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창안한 게릴라 전술로 이를 견뎌냈다. 그러나 중화소비에트공화국으로 피난해 온 중국공산당 고위간부들이 많아지면서 홍군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의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홍군이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략을 버리고 정규전을 시행하게 종용하였다. 그러나 홍군

은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한 국민당을 상대로 정규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으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근거지였던 장시성을 버리고 탈출해야 했다. 이 날이 1934년 10월이었고 이로써 2년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두 발로 가는 이 험난한 길은 무려 약 1만 2천km나 되었다. 대장정의 노정에서 국민당의 공격이 계속되어 수많은 병사들을 잃어야 했다. 최종 지점인 연안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고작 8000천여 명의 병사만이 남아 있었다. 1935년 11월 7일 마침내 마오쩌둥은 대장정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군은 11개의 성을 가로질렀고, 18개의 산맥을 넘었으며 24개의 강을 건너야 했다. 많은 병력을 잃긴 했지만 핵심 병력은 살아남아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시작부터 힘들고 포

기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들을 훌륭한 리더십으로 이겨냈다. 또한 마오쩌둥은 연변이 굉장히 뛰어나 연설을 할 때에도 중간 중간 유머를 넣어 재미를 자아냈고 리더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이기도 했다. 마오쩌둥의 이러한 리더십은 장차 장교가 될 나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지금의 군대는 옛날처럼 폭력과 폭언으로 부하들을 지휘할 수 없다. 부하들과 동고동락하고 부드러운 언변과 유머, 재치로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나는 이제 2년의 3사관학교 생도생활을 마치고 내년 3월에는 육군소위로 임관한다. 국가나 나에게 준 영예로운 직책인 소대장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와 재치 있고 유머 있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슬기로운 소대장이 되어 상급자보다 부하에게 인정받는 장교, 리더가 되고자 다짐해 본다.

기고문

### ‘소위’라는 글귀 앞에서



송형섭 모 (2훈육대 / 54기)

결혼 후 현충일이 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국립 현충원을 다녔다. 시아버님은 공군장교이셨다. 시아버님 형제, 남편 형제, 작은집의 아들들까지 모두 공군 제대를 했다. 평소 자율을 강조하시는 시아버님 성품으로 강조한 것은 아님에도 자연

스레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유일하게 육군 장교로 가신 분이 계셨다. 시아버님의 막내동생으로 내게는 시작은아버님이다. 육군에서 비행기 조종사 임무 중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해마다 현충일이면 시댁 가족과 친척이 현충원에 줄지어 밀려가듯 들어갔다. 몇 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곳에 계신 분들도 이제 부모세대는 떠나셨다. 그 영향으로 전보다 줄지어 밀려가던 모습이 사라졌다. 결혼 후 28번째 올해도 다녀왔다. 시아버님은 떠나셨어도 해마다 시어머니와 몇 분이 함께 가신다. 추모의 마음도 있지만 며느리라는 위치 때문일까? 제 지별

준비로 항상 분주한 마음이 앞선다. 시어머니가 연세 드니 전보다 내 몫이 많아진 것도 한 몫한다. 평소처럼 묘비 앞에 제수를 차리라고 개를 든 순간 눈길도 멈추었다. 묘비가 바뀐 것도 아니다. 묘비 글귀에 나의 행동이 잠시 멈추었다. ‘소위’라는 글귀가 내 눈길, 마음, 행동까지 멈추게 한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묘비를 대하고 묵념을 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다. 3사관학교 졸업반인 막내아들이 내년 2월 소위로 임관하는 것이다. 소위 임관이 코앞에 다가오자 소위 때 돌아가신 시작은아버님을 이제야 진심으로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정성으로 제를 준비하고 간다해도 의무를 행하듯 제를 지낸 것일까.

생전에 시할머니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현충원만 오시면 우셨다고 들었다. 그 이야기도 오늘 더 마음에 와 닿는다. 계급이 소위이면 군인의 길에서 시작한 시기이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비행기 사고로 가신 것이다.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새삼 떠오른다. 아들이 군인의 길을 좋아서 스스로 택한 것이 대견했다. 하지만 이 묘비의 글귀를 보는 순간 그동안 생각 못한 부분이 마음에 ‘쿵’ 하고 다가왔다. 그 글귀를 가리키자 아들도 내 마음을 읽었는지 내 팔을 꼭 잡는다. 아들도 “정복을 입고오니 어렸을 때부터 왔어도 졸업반인 오늘은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라고 한다. 나도 아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 다시 제 준비를 서둘렀다.



#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 ㉒ 복재(復齋) 정담(鄭澗) 선생의 자취를 찾아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실감한 채, 중국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였다. 중국에 가기 전 우리 선조의 발자취를 가능한 많이 전하고자 하였으나, 나의 게으름과 무능으로 인해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명문가를 찾아서’도 벌써 올해 마지막 장소를 찾아 가고 있었다. 이번 탐방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복재(復齋) 정담(鄭澗)선생의 자취를 찾아갔다.



▲ 송렬당 현판

연재 기사를 통해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영천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역전(逆轉)의 계기가 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 임진왜란 때에도 육전(陸戰)에서의 최초의 승전지라는 점에서 이곳이 지니는 의미는 더 크다. (일부에서는 동래성 전투가 최초의 승전이라고도 하지만 하루가 안 되어 성이 함락되었다는 점에서 영천 복성(復城)전투가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육전에서의 승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최근에 영천 복성 전투의 의미가 제고되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여러 역사적 정황으로 보더라도 이 곳 영천에 육군3사관학교가 있다는 것은 필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담 선생의 발자취는 ‘명문가를 찾아서 1’에서 소개한 도계 서원 근처에서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출발하여 도계서원으로 향했더니 그 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은 올 6월에 개관한 노계 박인로 선생의 기념관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짜임새가 있었다. 그 곳에서 정담 선생의 후손인 정병도 선생을 만나 기념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정담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갔는데, 선생의 자취는 도계 서원에서 불과 몇 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복재 정담 선생은 본관은 영일. 자는 청윤(淸允)으로 1552년(명종 7)에 영천에서 태어나 1634년(인조 12)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감찰(監察) 정인개(鄭仁槩)이며, 어머니 영천 이씨(永川李氏)다. 정담 선생은 1585년(선조 18)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효우역학(孝友力學)으로 천거되어 주부(主簿)의 벼슬을 받았



▲ 정담 선생 유허비

으나 나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에 진력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倡義)하여 영천성 회복에 큰 공훈을 세웠는데, 이 당시의 기록은 『복재실기(復齋實記)』 내에 「영천복성일기(永川復城日記)」와 「영천복성기(永川復城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어느 다른 실기보다도 그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 공훈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고, 승훈랑 내사직(承訓郎內司直)과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01년(선조 34)에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영천향교 대성전(大成殿)을 중건하고, 이듬해 임고서원(臨臯書院) 이건에도 힘썼다. 1614년(광해군 6)에는 ‘영천향서당입규(永川鄉射堂立規) [영천향사당입규(永川鄉射堂立規)]’를 제정하여 전후 사회 질서 확립에 헌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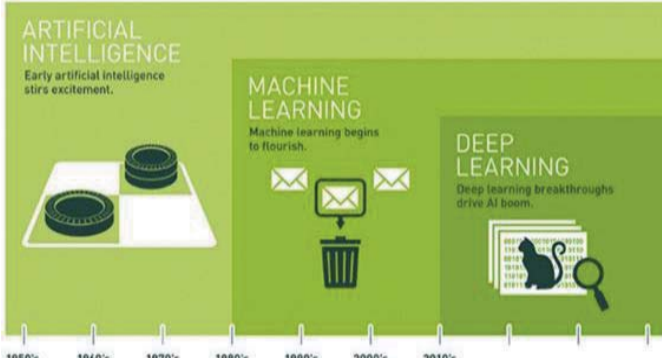
이렇듯 임진왜란 당시 영천 지역 거유(巨儒)로 큰 역할을 한 선생이었지만, 선생을 모신 서원은 현재 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유허비(遺墟碑)만이 선생을 지키고 있기에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영천 복성 전투에 대해 학계와 지역에서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지금 정담 선생의 위상이 다시금 제고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탐방을 마친다.

중령 최재호



## 빅데이터

#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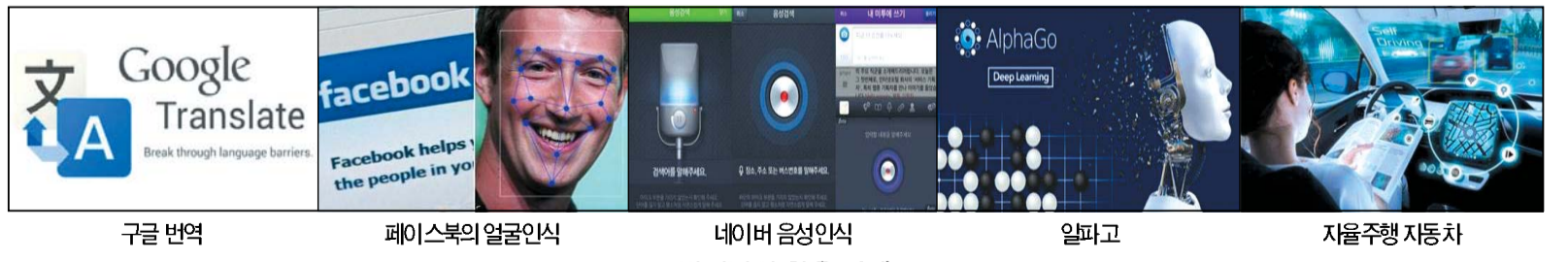


우리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대전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결과를 얘기하면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그리고 딥러닝(Deep learning)의 용어가 혼용되면서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은 위와 같은데 우선 인공지능이 1950년대에 나온 개념이고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의 머신러닝의 개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010년대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먼저,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1956년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존 매카시 교수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벽하게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진 기계, 즉 컴퓨터는 탄생하지 못하고 있고 바둑을 두거나 이미지 분류, 얼굴 인식 등의

방법으로써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속성을 기반으로 예측 및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learning)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서 인공지능망(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한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인공지능망은 사람의 뇌를 본뜬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를 들어, 많은 사진에서 강아지 사진을 분류할 때 인공지능망은 분석가가 사진 속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아닌

한 딥러닝에서는 사람의 노력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훈련해서 강아지의 패턴을 찾아내고 자동으로 분류해준다. 이런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예를 살펴보면 구글이 유튜브에서 등록된 동영상에서 고양이 동영상을 식별하거나 음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딥페이스’라는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2014년도에 개발해서 97.25%의 정확도를 가지고 전 세계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뉴스 요약, 이미지 분석, 음성인식 등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알파고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구글 번역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네이버 음성인식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 〈딥러닝의 활용 사례〉

특정한 작업을 인간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머신러닝은 이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지를 미리 알려줘야 하고 강아지의 특징을 사람이 미리 정의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망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딥러닝 기술이 쓰이고 있으니 딥러닝의 활용성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소령 손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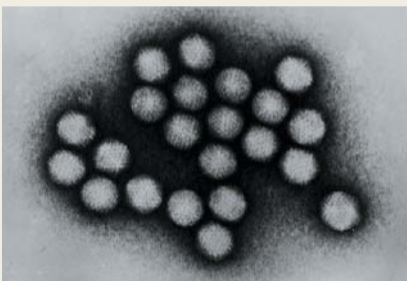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건강상식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천병철



군대, 특히 훈련소는 많은 인원이 밀집해서 상호접촉을 하고, 식사와 훈련생활 등 많은 환경을 공유하며, 야외노출과 각종 단체생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인플루엔자 등 군대와 훈련소에서 유행을 일으키는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서 번번이 문제가 되고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데노바이러스(Adeno virus) 감염증이다.



▲ 아데노바이러스

(출처 :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아데노바이러스는 DNA바이러스로 연중 유행하며 50여 개가 넘는 혈청형이 있고, 혈청형마다 다양한 증상과 특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세계적으로 군대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병훈련소 4주간 생활 중 보고된 급성호흡기질환자에서 76%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 우리나라 군인대상으로 실시한 발열성 호흡기 감염증 감시에서 분리된 병원체 중 아데노바이러스가 51%로 절반을 넘었다.(아데노바이러스 55형의 유행) 또한 2011년 4월에서 2012년 3월까지 1년간 폐렴으로 입원한 우리나라 군인에서 원인 병원체의 79%가 아데노바이러스였고, 이중 3명은 결국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특이 치료제는 아직 없다.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통상 4~8일(2주까지 가능)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혈청형에 따라서 결막염 등 주 증상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전파가 쉽게 되고 환경에서 바이러스 생존 능력이 좋아서 유행은 쉽게 생기지만



훈련소 등 군대에서 주로 유행하는 것은 3, 4, 7, 14, 21형 등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군대에서 새로운 55형의 유행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14형에 의한 감염은 증상이 심하고 합병증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1970년대 초부터 이미 미군 등에서 훈련소에서의 호흡기 감염증의 주범으로 확인되면서 예방접종(4, 7형)을 하여 유행이 줄었다가 백신회사에서 백신생산을 중단하면서 1999년 이후 아데노바이러스가 다시 크게 유행하였고, 2011년부터 다시 접종을 하면서 미군에서 4, 7형에 의한 유행은 크게 줄은 상태다. 그러나 14형 등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행은 계속되고 있고 미군뿐 아니라

관리는 어렵다는 것이다. 감염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부터 증상이 없어진 후 수 일간~수 주까지도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기침 시 나오는 호흡기 비말뿐 아니라 공기매개 감염이나 환자의 손이나 물건과의 접촉, 그리고 수영장 등 물을 매개로 한 감염이 모두 가능하다.

집단생활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예방 방법은 발열환자 감시로 발열환자와 접촉자는 조기에 발견해서 격리해야 한다. 군대에서 유행발생 시는 격리의 범위와 위협요인의 파악, 유행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역학자의 역할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개인수준에서는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의 강화와 N95마스크의 착용 등이 도움이 된다.

# 내 차보험 가입/갱신 쉽게 하자

손에 잡히는 재테크 ②

국군사랑전담컨설턴트 이시명



새 차 구매와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차량 보험, 그리고 매년 다가오는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작년엔 가입시켜준 그 설계사나 친구가 아직 하고 있는지 전화하기? TV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서 본 회사에 문의하기? 더 이상 주변에 부탁하지 말고 이제 집에서 직접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보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http://www.e-insmarket.or.kr>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이트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다룰 '보험다모아'가 그 중 한 곳으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주체인 사이트다. 만 3년째를 지나는 '보험다모아'는 온라인 전용 상품, 방카저축성 보험상품,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자동차보험 온라인 전용 상품을 알아보자.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페이지를 보면 각 특약이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알려주고, 내가 가입한 보험은 무엇인지, 차종/연령/경력/연령특약/운전자범위/성별/담보에 따라 대략적인 상품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 수 있다. 가입 시에 보험료가 중요한 선택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되 보험은 사고 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한 뒤 내게 필요한 보상이나 부가서비스, 회사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상품을 결정하면 된다.

자신이 스스로 상품을 알아볼 경우 어느 상황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할인 특약을 꼼꼼히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보험다모아'를 통해 직

접 가입을 고려해보자.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만기 30일 이내 계약만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며, 병행수입 외제차나 15년 초과 차량 등은 차량가액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보험료 조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MYCAR 내 차보험 찾기  
<https://mycar.kidi.or.kr>

'내 차보험 찾기'는 일반적인 차량운전자보다는 차량 사고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들에게 적합한 사이트다.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는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때 보험회사에 일일이 접촉하지 않고 '내 차보험 찾기' 사이트 한 곳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용 자가 차량 소유주라면 신규/갱신 모두 가능하다. 갱신할 경우 현 계약의 보험 만기일 기준 3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신규 가입일 경우 책임 개시일 기준 5영업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제2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대신 '내 차보험 찾기'는 대부분 각 보험사의 전화상담(TM)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면 서비스 이후 해당사의 온라인판매부서(CM)나 '보험다모아'를 통해 상품 재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 차보험 찾기'를 통해서도 보험 회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 보험 회사가 운영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해 가입해보자. 매년 다가오는 자동차보험 갱신, 한 번 조금만 공부해서 매년 저렴하게 가입해보자.



부히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는 스카프...

포토에세이

54기 기자생도 김찬영

'절절포 정신' 체험  
소감문 대상작

# 이겨내면 이기는 고난



생도 최정호  
(5훈육대 / 55기)

사람이라면 누구든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맞보게 된다. 어린 아이들부터 늙은 노인까지 고난과 역경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고난과 역경과의 싸움에 무너져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으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절포 정신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어떤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절절포 정신을 삶에서 실천한 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고 힘들어도 내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않으셨다. 육체적으로는 온전치 않으셨지만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넓은 바다와 같이 부유하셨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던 나는 또래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성숙해진 몸과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시고 차를 운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교하기 전 휠체어를 들어서 차 뒤쪽에 실어드렸다. 나는 휠체어를 타는 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원망해 본적 없다. 오히려 그런 불편하신 몸을 가졌음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내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우리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하셨다. 학교에서 부러부러 짐

을 싸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동인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들과 내가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가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 현실적으로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유독집에 오기가 싫었다. 지금이 상황이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가정용 휠체어가 한쪽에 세워져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항상 나를 반겨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고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에서 아무 생각없이 조금 기다리다 보니 삼촌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녀이 나간 채로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이었다. 지금이 꿈일까? 현실일까? 제발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그 옆에 쓰러져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머니를 꼭 안고 평평 울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와 나의 앞날을 생각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앞날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루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친척분들이 하나둘 오셔서 나를 꼭 안고 울어도 나는 현실을 외면했다.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두고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우시고 아프셔서 누워만 계셨다. 20여년을 함께 살아오셨고 정말 가장 밑에서부터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셔서 가정을 꾸리셨는데 어머니도 실감이 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 생각해 보면 집안의 "가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때의 어머니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현실의 감정과 앞으로의 미래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생각보다 현실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재가 어머니와 나에게는 크나 큰 아픔이었고 시련이었다. 어머니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에 내가 학교를 갔을 때는 집에 혼자 계시지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

한 그리움이 크셨다. 그래서 이모가 집에 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계셨다. 그때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머니도 나도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려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이모가 살고 계시는 곳 근처로 이사를 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당시에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야 우리 가정이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사를 온 지역은 경북 상주였다. 낯선 환경과 처음 보는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와 나뿐인 우리 가족은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했다.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서로가 채우며 지금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했다. 당시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중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내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였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데서 비롯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중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 나는 밤을 새어 가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과는 240명 중에서 37등을 하였다. 처음 받아보는 높은 성적에 나는 쾌감을 느꼈고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더욱 힘이 솟았다. 다음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며 더 열심히 준비했고 결과는 17등의 값진 수확을 얻었다. 나는 그때 받은 성적표를 통해 무엇이든 간절하게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느꼈다. 또한 이사를 오고 난 이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일들이 생겨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었던 우리 가족에게 "KT&G"라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후원해 주셨다.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와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고 크게만 느껴지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대학에 진학하면 금전적인 영향이 집에 끼칠 것 같아 일찍부터 나에게 적

합한 여러 대학들을 찾아보았다. 최대한 어머니의 도움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대학들을 찾아 나열하였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는 나의 목표에 부합하며 금전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육군3사관학교'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이 4년제 대학교를 2년 다니고 육군3사관학교에 응시하여 3학년 때 편입을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의 계획이었다. 운이 좋게도 지방 4년제 사립대학에 진학하였고 대학교 1학년 육군3사관학교 예비생도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곳에 진학하여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현재 3학년의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신기하게도 서정열 학교장님은 우리들에게 최신행 정신무기인 절절포 정신을 강조하신다. 절절포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말을 줄인 뜻이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과는 달리 힘든 일이 앞에 닥치게 되면 시도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절절포 정신을 가지고 이겨내려 노력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나는 중학교 1학년, 14살 때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일찍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를 삶의 이른 시간에 느꼈다. 당시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어 무엇인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자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곁에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최근에 많이 든다.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서 얼은 시련과 고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계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아파한다. 아무리 지독한 시련일지라도 긴 인생을 두고 보면 잠시에 불과하다. 고난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무릎 꿇었을 때 뿐이다. 아래로 떨어지는 공은 바닥까지 닿아야 비로소 튀어 오를 수 있듯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즐겁고 기쁜 일도 반드시 온다. 또한 인생길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역경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내고 매사에 절절포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영화

### 월요일이 사라졌다



생도생활을 하다보면 동기들이 있어 울고 웃고 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다. 수많은 사람들 중 첫째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보편화된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개하려는 영화는 이러한 보편적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다. 영화 '월요일이 사라졌다'에서는 점점 고갈되는 자원과 인구 증가 문제 등의 지구가 처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갈수록 없어지는 지구의 자원, 증가하는 인구, 그리고 황폐화 되가는 지구...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구수로 인해 세계 강국인 미국은 1가구 1자녀 '신아제한법'으로 인구 증가를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인해 태어나서는 안 될 일곱 명의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녀들의 외할아버지는 손녀들을 살리기 위해 태어난 순서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들은 해당되는 요일에 카렌 셋맨이라는 여자로서 거리로 나가게 되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은 바로 1인 7역의 배역 소화이다. 영화 주인공역을 소화해 낸 누미 라파스는 영화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넌트' 등 판타지 영화에 대한 내공이 쌓여있는 배우이다. 영화 속에서 7쌍둥이 각각의 개성을 표현해 내는 누미 라파스의 연기는 2018년 최고의 여배우로 뽑혀도 손색

이 없다. 그녀 역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미친 것이었다. 겁도 났지만, 굉장히 재미있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연기 중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했으며, 그녀의 도전정신이 1인 7역이라는 배역을 소화해냈다.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더 무서워지는 미래도시와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디지털 신분 팔찌 등 미래 과학의 발전에 대한 오묘 및 실체를 면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 할 수 있겠다. 54기생도 전성우



